

제6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

- 일 시 : 2002.11.26(화), 14:00~16:40
- 장 소 : 통일교육원 강당
- 주 최 : 통일부
- 주 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후 원 : 교육인적자원부

통 일 부



# 목 차

- I. 진행순서 ..... 5
  
- II. 주제 발표문 ..... 7
  -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 ..... 9  
(차우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 III. 토론자 발표문 ..... 31
  - 1.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에 관한 토론 ..... 33  
(윤기홍, 목동중학교 교사)
  - 2. 중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41  
(방연주, 시흥중학교 교사)
  - 3. 학교통일교육 실천방향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토론 ..... 55  
(유은진, 성서중학교 교사)
  - 4.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에 관한 토론 ..... 61  
(이세형, 언남중학교 교사)
  
- IV. 부 록 ..... 69
  - 1. 통일교육지원법 ..... 71
  - 2.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 73



## 진행순서

- 14:00-14:05 국민의례
- 14:05-14:25 개회사 : 이봉조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 14:25-14:30 축사 : 유인종 (서울특별시 교육감)
- 14:30-15:10 주제발표 : 차우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 15:10-15:25 토론 : 윤기홍 (목동중학교 교사)
- 15:25-15:35 휴식
- 15:35-16:20 토론 : 방연주 (시흥중학교 교사)  
유은진 (성서중학교 교사)  
이세형 (언남중학교 교사)
- 16:20-16:40 보충토론 및 플로어 질의응답
- 16:40 폐회

◆ 사회 : 김온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주제 발표문**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  
(차우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

차 우 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 I. 학교통일교육의 의미와 쟁점
- II.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특징
- III. 학교통일교육의 목표
- IV.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 V. 학교통일교육의 지도방법
- VI.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 I. 학교통일교육의 의미와 쟁점

### 1. 통일교육의 정의

(1)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

※ 통일 = 법적·제도적 통일 + 사실상의 통일

(2) 통일교육은 암기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이해에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 능력 배양 교육'이라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1999년 6월 서해에서는 연평해전이 일어났는데도 동해에서는 금강산 관광선이 운행되었던 사실이나 2001년 6월 북한민간선박의 영해침범사건 등에 대해서 그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구체적 사실을 놓고 어떻게 대처한 것이 바람직하였겠는가 등을 함께 생각해 보는 이해교육 내지는 토론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 2. 통일교육의 제 쟁점

최근 학교교육현장에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큰 분수령으로 하여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과거와는 다른 통일교육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강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의 모습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둘째, 민족자결이라고 하면서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셋째, 우리 사회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북한과 대화를 통해 통일논의를 하자는 것인가,

넷째, 남북이 화해 협력하려는 마당에 땅굴전학 등 안보교육을 계속해야 하는가,

다섯째, 청소년의 통일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여섯째,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교육 등 통일교육을 대신하려는 교육노력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일곱째, 아직도 통일교육은 정부정책의 홍보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닌가 등

## 3. 통일교육의 제 쟁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검증되지 않은 각종 교육자료들이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가치나 검증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다소간의 인식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2) 교사들의 학생들의 통일외지 함양과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부응하는 민족의식을 배양하는 측면에서 다양하고도 자율적인 수업구성과 진행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교육의 체계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통일문제 및 북한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토대가 시급히 형성되어야 할 시점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 분명히 남침한 6.25전쟁을 민족내부의 다툼으로 인식하는 상태에서 수업내용을 구성한다거나, 북한에 대한 객관적 비판은 전혀 하지 않고 우리와 미국만이 과거의 자세를 반성하고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논리 전개는 우리 사회 내의 갈등만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하겠다.

(3) 현재의 북한을 언제나 변하지 않을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모습은 줄여나가고 동포의 모습은 키워나가는 실천적 노력이 남북관계에서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4) 남북분단사 반세기를 돌아보면 6.25전쟁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초기의 강력한 노력동원체제를 바탕으로 전쟁으로 황폐해진 경제를 우리보다 빨리 복구하면서 70년대 초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6.25의 아픈 경험을 가진 그 당시의 국민정서로서는 안보교육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70-80년대의 국력각축시기를 넘어 우리 체제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확실한 우위를 보이면서 안보교육만의 또는 안보교육중심의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체 교육과 화해협력교육 등에 통일교육의 중심 위치를 내주게 되었다.

(5) 안보교육은 군사적 대결상태에 있는 남북 간의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 전체의 안전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교육이다.

#### (6) Peace Keeping → Peace Making

금강산 관광의 실현으로 북한의 최전방 잠수함기지가 후방으로 이동한 것이나, 앞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동서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연결된다면 이것이 바로 적극적 안보의식의 모습이자 안보와 화해협력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구현되는 결과라 할 것이다.

(7)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엄존하는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확고한 방어력으로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낮추고 휴전선에서 상호비방을 중지하는 등 적으로서의 모습을 줄여나가는 한편, 금강산을 군사적 요충지에서 화해협력의 장소로 바꾸어 나가는 것과 같이 함께 사는 동포로서의 모습을 키워나가는 입체적 동태적인 지혜를 갖추는 것이라 할 것이다.

(8)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땅굴견학을 통한 안보교육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이러한 남북관계와 북한에 대한 종합적 인식의 틀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른 교육만 하려는 경향을 탈피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견해로 볼 수 있다.

땅굴현장 견학교육도 이 교육을 통해 북한의 안보위협은 아직도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과 함께 안보의식을 되새기는 한편, 이에 머물지 말고 남북이 이러한 소모적 긴장조성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서로 좋게 화해 협력하는 것이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한민족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는 의미를 도출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이 과거 2차 대전 때의 유대인 학살현장을 보존하고 지금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9) 2000년 6월 15일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 제1항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주적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민족만을 뜻하는 '폐쇄적 자주'와 '우리 민족이 주인이되 관계국들의 이익도 균형 되게 고려하는 '열린 자주'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우리 주변에서 통일문제를 다루면서 외세 배격적인 구호를 우선하는 일부의 현상은 우리 모두가 심각히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10) 우리가 통일이라는 민족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역할분담 틀을 잘 마련해서 주변국이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설득해 나가야 하며, 상호이해가 대립되는 문제(일본 역사교과서, 6.25 양민피해)들은 사안별로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중국적으로는 열린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평화의 조정자', '지역번영의 주창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II.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특징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초, 중등 도덕과 및 사회과에 공식적으로 제시된 통일관련 제재 및 하위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표-1> 및 <표-2>에서와 같다.

<표-1> 도덕과의 학년별 통일 관련 제재 및 하위 내용 요소

학교급 / 학년	제재명	하위 내용 요소
초등학교 3학년	0 분단현실과 통일 필요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분단의 현실과 그 원인</li> <li>- 이산 가족의 아픔 등 민족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li> <li>- 민족의 동질성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li> <li>- 민족 통일을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가짐</li> </ul>
초등학교 4학년	0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보의 의미와 중요성</li> <li>-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안보의 여러 측면과 그에 따라 노력해야 할 점들</li> <li>- 국가안보와 평화 통일, 국가 발전과의 관계</li> <li>- 일상생활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들</li> </ul>
초등학교 5학년	0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 통일의 의미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까닭</li> <li>- 평화 통일을 이룬 사례와 그 교훈</li> <li>-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적절한 방법들</li> <li>- 일상 생활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과 이를 실천하려는 다짐</li> </ul>
초등학교 6학년	0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때의 조국의 미래 모습</li> <li>- 우리의 통일 방안의 당위성과 합리성</li> <li>- 통일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li> <li>- 평화통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과 그 실천 방안</li> </ul>
중학교 2학년	0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의 의미</li> <li>- 통일의 당위성</li> <li>- 다른 나라의 통일과정</li> <li>-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li> </ul>
고등학교 1학년	0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 분단의 원인</li> <li>- 민족 분단의 과정</li> <li>- 민족 분단의 교훈</li> </ul>
	0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의 대내외적 통일 환경</li> <li>- 남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li> <li>-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들</li> </ul>
	0 민족 공동체의 변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 공동체의 당면 과제와 해결</li> <li>-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li> <li>- 세계 속의 바람직한 한국인상</li> </ul>

<표-2> 사회과의 학년별 통일 관련 제재 및 하위 내용 요소

학교급 / 학년	제재명	하위 내용 요소
초등학교 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새로운 사회, 문화로 가는 길</li> <li>0 민주 시민의 권리와 준법정신</li> <li>0 통일과 민족의 앞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5 전쟁에 관한 사진 자료와 이야기를 통해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알아보고, 민족 통일의 당위성에 대하여 토의한다.</li> <li>- 남북한간의 대치 상황, 역사상의 외침 등의 사례를 통하여 국방 의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토의한다.</li> <li>- 우리나라의 분단 원인과 그 후의 남북 대결과정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li> <li>- 남북 회담이나 이산 가족 찾기 등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이해한다.</li> <li>- 통일 조국의 미래상을 생각해 보고, 앞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힘써야 할 점에 대해 토의해 본다.</li> </ul>
중학교 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북부 지방의 생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륙의 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부 지방의 위치 특성을 살펴보고, 국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한다.</li> </ul> </li> <li>- 북부 지방의 중심지 관서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산화 이후 토지제도와 농업 방식의 변화를 설명하고, 최근 북한이 당면한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하여 조사한다.</li> <li>· 북한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고, 식량 부족의 원인을 알아본다.</li> </ul> </li> <li>- 문호를 개방하는 관북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개방 정책을 파악하고,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 협력에 대해 조사한다.</li> <li>·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교역품과 교역량의 추이를 조사한다.</li> </ul> </li> </ul>
중학교 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현대 세계의 전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세계 대전과 전후의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이루어 가는 과정을 이해하며, 러시아 혁명이 이후의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li> </ul> </li> <li>- 제2차 세계 대전과 전후의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후 냉전 체제가 형성되고 변화되어 온 과정을 파악하고 백지도에 표시한다.</li> </ul> </li> <li>- 현대 사회의 변화와 시민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산권의 몰락 및 자본주의 체제의 확대와 관련하여 국제 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설명한다.</li> </ul> </li> </ul>

학교급 /학년	제재명	하위 내용 요소
중학교 3학년	0 지구촌 사회와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민족의 발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분단의 배경과 분단 이후의 남북 관계, 그리고 화합과 협력을 위한 노력을 이해하고 민족 통일의 방안을 알아본다.</li> <li>· 국토 통일이 북방 진출, 대외 교역로 확보, 개발 잠재력의 신장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를 파악한다.</li> <li>· 북한 주민과 남한의 언어, 의식, 생활 풍습 가운데 동질적인 것과 이질화되어 있는 것을 비교하고, 이질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해 본다.</li> </ul> </li> <li>-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민족은 줄기찬 독립 운동과 연합국의 승리로 8·15광복을 맞이하였으나, 곧이어 38도선을 경계로 미소 양국의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국토가 분단되었음을 이해한다.</li> <li>·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결정된 신탁통치안에 대한 문제로 민족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반탁과 찬탁으로 분열되면서 좌우 대립이 본격화되었음을 파악한다.</li> <li>·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 공산군의 남침을 격퇴시켰으나, 결국에는 휴전이 성립되어 오늘날까지 민족 분단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음을 이해한다.</li> <li>· 처음에는 신탁통치에 반대했던 공산주의자들이 곧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받아들여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한다.</li> <li>· 김구와 김규식에 의해 전개된 남북협상의 노력이 미소간의 냉전체제 하에서 실현 가능한 것이었는지 추론해 볼 수 있다.</li> </ul> </li> <li>- 민주화 운동과 통일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5전쟁 이후 북한은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면서 유일 사상 체계를 확립하였음을 의미한다.</li> <li>· 정부는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 등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였고, 그 결과 1991년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게 된 것을 이해한다.</li> </ul> </li> </ul>
고등 학교 1학년	0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미래와 대응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 발전과 한반도의 통일, 정의·복지 사회의 확립과 민족 문화 발전 등 질적인 발전을 위한 한국의 과제를 파악한다.</li> </ul> </li> </ul>

우리나라 초, 중등학교에서의 통일관련 교육의 특징을 교육과정 시기별로 통일정책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표-3>에서와 같다.

**<표-3> 교육과정별 통일 정책의 특징**

교육과정	고시 연도	통일 정책	내용 특징
1차	1955	북진 통일	반공교육 멸공교육 승공교육
2차	1963	선 건설 후 통일	
3차	1973	평화 통일	반공교육 지공교육
4차	1981	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	
5차	1987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통일·안보 교육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6차	1992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민족 화해·협력 교육 민족 동질성 회복 교육 통일 대비 교육
7차	1997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대북화해협력정책)	

### Ⅲ. 학교통일교육의 목표

#### 1. 민족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며 이를 열망할 줄 아는 인간

통일은 남북한 구성원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열망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시작도 남북한 주민들이 민족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며 이를 열망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 많은 조사 연구에 의하면, 통일의 당위성과 관련하여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과 통일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어느 덧 통일에 대한 무관심 내지 통일 기피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지나치면 통일보다는 오히려 분단의 고착화를 희망하게 될 수도 있다.



## 2. 통일에 따른 다소의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가진 인간

통일이라는 민족 최대의 당면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성원 개개인들은 다소의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에도 그 불이익과 희생은 개개인에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 장기적으로는 나를 포함한 민족 공동체의 영원한 이익과 발전에 주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기본적으로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학습자들에게 공동체주의이론에 입각한 통일관을 꾸준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은 먼 과거 속에서만 같은 민족이고 겨레일 뿐 지금은 전혀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에게 '남북한은 오랫동안 같은 언어, 문화, 사상, 역사, 그리고 삶의 터전을 가진 한 민족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지금은 남북한간의 차이와 간격을 논의하는데 급급할 뿐,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내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모색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 이는 과거 역사 속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현재의 삶이나 미래의 한국인상을 설정하여 탐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예로, 어른을 공경하거나 훈훈한 인정을 지니고 있는 것, 가족에 대한 애착, 성실한 근로 정신 등을 들 수 있다.

## 3. 남북한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남북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

상호 이해와 존중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객관적 이해는 사실적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을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한 예로, 북한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식량 부족으로 기근이 심해 일부의 사람들이 아사(餓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춰 북한에 대한 방송으로 내보낸다면, 이것은 북한을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남북한이 진정으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북한인들의 삶을 전체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북한의 어려운 식량 사정과 함께 북한 주민들 간의 정적(情的)인 인간 관계나 공동체 의식 등도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 4.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

남북한간에는 상호 비방과 흠집내기 보다는 각기 지니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덮어줄 수 있는 포용력이 요구된다. 남북한간에는, 독일의 사례와는 달리, 이미 동족간 상잔(相殘)이라는 6·25전쟁의 아픈 상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 화해와 협력, 더 나아가 평화 통일은 요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도 민족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고 달래면서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 국민 내부 간의 갈등(흔히 '남남갈등'이라고도 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

탈북자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한 학생들이 그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면서 처음 수일간은 자신들에게 관심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차 무관심해지고 무시하는 경향까지도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이는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낙후된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한 주민들은 '2등 국민'이라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집단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 큰 사회 혼란과 갈등의 원천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교육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을 키워내야 한다.

#### 5. 통일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룩하려는 신념을 가진 인간

자기 주변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조그만 문제와 갈등에 대해 힘과 폭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집단이나 국가 간의 갈등

에 있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힘과 폭력으로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니버(Reinhold Niebuhr)의 말처럼, 개인은 도덕적이라도 집단은 비도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하나의 법과 제도로써 통일된 국가 체제를 실현하게 된다면, 상이한 문화와 이념 및 가치관으로 인해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문제를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남북 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갈등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갖추어 줄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프로그램이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sup>1)</sup>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6.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성격을 이해하는 인간 (열린 민족주의를 이념적 토대로 한 통일한국의 미래 설계 필요)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남북한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 노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 강대국들 간의 첨예한 이해 관계 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통일된 국가가 그들의 국가 이익에 해(害)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 각자가 통일 한국을 주도해 나갈 주체로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내고, 지금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한 예로, 모의 정상 회담을 개최하여 자신이 남한의 대표라고 했을 때, 북한의 정상과 주변 강대국들의 정상들에게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시연해 보게 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성격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

1) 한국자유총연맹에서는 2000년부터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민주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와의 협력하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번역하여 통일교육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에서도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7. 냉전적 사고 방식['red complex'와 'blue complex']을 극복하고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인간

남북한간에는 6.25전쟁을 겪은 이래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주민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red complex'와 'blue complex'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맹종적 수용 태도를 취하는 반면, 상대방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이고 감정적인 거부 반응을 나타내기 쉽다. 그런데 이러한 냉전적 사고 방식 및 이데올로기적 태도를 가지고는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화해와 협력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교육을 통해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적 편견에서 벗어나서, 각각의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 특정 이데올로기에 종속되는 삶이 아닌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활용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 IV.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 1. 통합적 접근

학습자의 정서, 인지, 행동(실천)이 통합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지도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감정적으로 학습자의 마음에만 호소해서는 곤란하며, 그들의 머리와 손과 발을 함께 흔들 수 있어야 의미 있는 학습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sup>2)</sup>.

### 2. 전체론적 접근

통일(統 ·)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체들의 독자적인 특성을 무시하는

---

2) 학습자가 활동이나 실천을 통해서 학습하게 된 때 피상적 이론에서 벗어나 그 이론은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고 이를 실제 세계에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거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확일 내지 균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들의 독특한 특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전체성 속에서의 유기적인 통합 내지는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흡수된 쪽에서는 열등감을, 흡수한 쪽에서는 지나친 우월감을 지니게 되어 결국 통일은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게 된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가 필요)

### 3. 조화론적 접근

통일의 당위성을 말할 때, 의무론적 접근과 목적론적 접근이 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 요즘 학생들은 물질주의적, 개인주의적, 현실주의적 성향이 강하므로 당위론적인 주장만으로는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당위론적 주장과 더불어 분단비용이나 통일효과 등의 구체적인 공리주의적인 접근이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 4. 균형적 접근

반공 교육기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기술은 늘 이념적 세계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을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도 균형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 때문에 우리의 통일교육은 다소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 통일을 위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사실들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적극적 접근

“북한의 변화되는 만큼만 우리도 변화한다.”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 6. 다중적 접근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흥미와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 학습자의 다양한 지능을 자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 7. 생활관련 접근

통일교육은 학습자들의 생활과 관련된 소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예로, 요즈음의 학생들의 가치 지향은 상당히 현실적이며 사실적이다. 자신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에는 흥미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도 무엇보다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을 시켜야 한다.

## 8.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

우리가 의도하는 균형 있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일에 기반이 되는 다양한 교육의 관점이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단순한 정치교육만이 아니라 인간주의 교육, 민주시민 교육, 공동체 교육, 평화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이문화) 이해교육, 배려윤리 교육 등을 포함하는 좀더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 9. 과정적 접근(process approach)

통일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통일교육에 있어서는 과정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은 이분법적 개념이 아닌 '몇 % 달성되었다'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통일교육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되며, 정치 체제 및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넘어서서 사회 문화적, 역사적 접근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다 통일의 주체로서 그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통일교육에서 과정적 접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남북한 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세부 요소들을 작성하고, 각 요소들에 대한 수준 구분과 함께 점수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통일 지수(U.Q.)'라고 한다면, 통일 지수를 일정 부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하고, 그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어야만 하는지가 분

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통일에 대한 전망은 단지 점성술이 아닌 과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의 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측해 나갈 수 있고, 통일의 비용도 최소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10. 자율적 접근

학교 통일교육은 교육 주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내지 자율성 보장에 기초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이 의도적으로 북한이나 공산주의를 찬양하고자 한 경우가 아니라면, 북한 및 통일교육에 관련해 그들의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서는 자율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과거 안보 및 반공을 중시하던 시절에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온 북한이나 공산주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척도만을 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통제했고 지나친 정치적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교육 주체들이 북한 이해 및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하기를 기피하고 무관심해지기까지 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한 예로, 초등학교 한 교실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통일의지를 키워주기 위해 교사가 미술시간에 학생들에게 통일포스터를 그리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통일 포스터를 그렸고, 그 중에 잘된 몇 작품들을 선정해 학급 뒤의 게시판에 한 나절 전시해 두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 그림 중에는 한반도 모양의 그림 속에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북한의 인공기가 나란히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학교 순시중에 그 그림을 발견한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는 담당 교사에게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였고, 결국 그 그림은 잠시 후에 게시판에서 떼어내었다. 그 일을 계기로 그 교사는 통일교육에 대해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통일관련 내용이 교과서에 나오면 앵무새처럼 핵심 내용을 강의식으로 간략히 정리하고 그냥 넘어간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의 자율성 보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 그림 속에 인공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red complex], 그 그림이 어떤 의도로 그려졌는가를 알아보고 그 의미

를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럴 경우 그런 활동은 오히려 학교 통일교육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 11. 연계적 접근

학생들은 학교 이외에 가정, 언론 매체, 사회 기관 등 다양한 매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에서보다도 언론 매체에 의해 그들의 대북관이나 통일관을 지니게 된다고 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TV를 비롯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약 90% 정도의 북한 및 통일 관련 정보를 얻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아동들의 정치에 대한 가치와 태도 형성에 있어서는 부모의 영향을 상당한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학교 통일교육은 다른 매체, 특히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속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 12. 쟁점 및 사례 중심 접근

학교 통일교육도 사회 통일교육과 마찬가지로 원론적 접근 못지 않게 현안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 예로, 남북 교류 및 협력 과정에서 나타났던 긍정적 및 부정적 사례라든지, 일상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 중심의 접근은 통일 문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아울러 기존의 경험 사례들에 대한 범례 학습을 통해 발생 가능한 사례들을 예측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 V. 학교통일교육의 지도방법

구 분	통일교육지도방법	
○ 집단토의 방법	- 최적방안 찾기(PMR) - 브레인스토밍	- 유비토의 - 마인드 맵
○ 집단탐구 활동	- 직소우	- 집단 탐구조사 발표
○ 발표하기	- 확언하기	- 이야기하기
○ 자료를 통한 통일/북한어해하기	- 신문활용하기(NIE) - 광고나 만화 활용하기 - 디스코그래피	- 북한 문학작품 활용하기 - 북한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에 대한 감상문 쓰기
○ 인터넷 활용 방법	- 전자우편 활용하기 - 전자게시판 활용하기	- 정보사냥대회
○ 게임을 통한 통일교육	- 북한 낱말 기억하기 - 통일주체 4행시 만들기 - 백지도 게임	- 십자말(퍼즐) 풀이 - 판놀이 - OX 퀴즈
○ 체험학습	- 남북한 학생 교류 (스포츠, 서신 등)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하기 - 북한 생활 체험하기 - 현장 견학하기	* 간접체험학습 · 시뮬레이션 · 역할놀이 · 문화이해지

## VI.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 1. 표준 통일교육 교육과정안의 마련

통일교육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통일교육 교육과정(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절실한 과제이다. 통일교육의 성격과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정리하는 일은 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정부가 표준 통일교육 교육과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흡수통합을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비추어져 남북 관계를 어렵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일지도 모른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통일교육 문제는 그 동안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어서 이 문제를 잘못 건드려 정치적으로 곤혹을 치르게 되니 이 문제를 피하고 보자는 교육 전문가들이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통일교육은 연령, 직업, 성별, 학력 등에 따른 차별화된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학문 분야별로 내지 교과별로 통일교육을 어떻게 역할 분담하여 실시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가 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교과간, 학년간 내용 중복이 심하고,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 2. 범교과를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양성 교육과정 마련

통일교육은 과거에 도덕과와 통합 사회과를 중심으로 통해 정치 이데올로기적 통일교육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통일교육이 정치 이데올로기적 접근 위주에서 탈피해 사회 각 분야에서의 통합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과목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즉, 통일교육은 이제 일부 교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범교과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학제적인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 교과에서 실시할 수 있는 통일교육 내용이나 방법들을 새롭게 정립하고, 일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마련하는 일이 매우 시급해지고 있다.

또한 범교과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에서 통일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교원이 양성되어야 하는데 교원양성 프로그램에 통일교육 관련 강좌들이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다.

### **3. 재량활동을 이용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마련**

교과를 통한 통일교육도 중요하지만 교과를 초월하여 통일만을 위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재량활동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통일교육이 특정 가치를 학생들에게 맹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여러 통일 문제를 스스로 혹은 집단 활동을 통해 이해하고 탐색할 줄 아는 학생을 양성하는 자율적인 교육이라고 할 때, 특히 통일교육을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해 나가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럴 때 학생들은 더욱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추종자로서만이 아닌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 **4. 통일교육 연구활동에 대한 적극적 예산 지원 (통일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임)**

통일교육은 정부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민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통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의 통일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통일교육 관련 단체 활동은 개인의 영리와는 관련이 적으며, 국가·민족애 및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사회 봉사 활동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그 운영에 있어서도 인적 자원 확보나 재원 조달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통일교육지원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는 여러 조치를 착실하게 모색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5. 사이버를 활용한 통일교육 자료 센터의 특화 및 네트워크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사이버 통일교육은 각종 언론사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올해에는 상당히 케도에 올라오고 있

는 느낌이다. 이러한 사이버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관심은 전 국민에게 확산시키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신세대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 통일교육은 각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이들간에 상호 보완성이나 연계성이 부족하고, 각각의 사이버 통일교육이 다른 것과 차별화 되는 특화(特化)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각 기관들 간에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기관의 특화를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6. 통일교육 컨설팅제 운영 및 통일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

특정 기관에서 통일교육에 관한 내용이나 방법과 관련하여 조언을 요청할 경우, 그 기관을 통일교육 전문가(팀)이 방문하여 현재의 통일교육에 대해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컨설팅 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 컨설팅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 자료들을 개발하였는데 그 질(質)에 대해서는 의견이 매우 분분한 실정이다.

최근 수년간은 과거의 반공교육 자료 외에 화해와 협력을 유도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들이 워낙 부족했었기 때문에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여 자료를 개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통일교육 자료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좀 달라졌다고 보여진다.

양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자료들이 얼마나 질 높고 의미 있는 자료인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체제를 마련하고 전문가를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 7. 상설적인 통일교육 협동 학교 계획(ASP) 운영

통일교육 연구학교 내지 시범학교 운영은 오래 전부터 교육인적부와 통일부,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의 지원 하에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교육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운영은 매우 제한적인 규모로 이루어져 왔고, 시기적으로도 1-2년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연구 결과가 매우 전시적인 효과에 국한되며, 그 효과마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보다는 통일교육에 의욕적이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쌓아 가는 학교를 지역별로 10여 개씩 선정하여 통일을 위한 ASP(Associated School Project; 협동학습계획)운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보다는 그 규모에 있어서 10배 이상으로 하여 늘리고, 예산 지원은 실제 통일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단가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1-2년 내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가 그런 활동을 지속하는 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우수한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주변 학교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8. 대학수학능력시험(약칭 대수능) 및 각종 모의고사에서의 출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특히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는 대수능 및 각종 모의고사에 통일 문제가 출제되었는지의 여부가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현실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통일문제가 최소한 1문항 이상 대수능 시험에 출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의지와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올해 000교육청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고사 문항을 본인이 분석해 본 결과 통일교육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통일교육을 아무리 학교 현장에서 강조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단지 메아리로 사라져 버릴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수능 및 각종 모의고사에 통일 문제가 1문항 이상 반드시 출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만 한다.

cosmos@kice.re.kr



## 토론자 발표문

1.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에 관한 토론**  
(윤기홍, 목동중학교 교사)
2. **중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방연주, 시흥중학교 교사)
3. **학교통일교육 실천방향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토론**  
(유은진, 성서중학교 교사)
4.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에 관한 토론**  
(이세형, 언남중학교 교사)





#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에 관한 토론

윤 기 홍  
목동중학교 교사

## 1. 들어가면서

분단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통일운동의 역사에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라면 역시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남북한의 공존을 모색해온 현 정권의 햇볕정책의 출발점이자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는 당시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 통일에의 전망이 한층 밝아졌으며, 또 그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통일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2년 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남북관계는 냉각기와 화해무드를 오가면서 끊임없는 부침을 거듭해 왔다. 최근 들어 지난 4월 금강산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최근의 스포츠 교류 - 통일 축구,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선수단 참가 및 응원단 참가 - 및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 공사 진행, 북한 경제관료의 남한 산업 시찰 등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6월 북방한계선(NLL) 침범문제로 인한 연평해전의 발발 및 최근의 핵무기 개발 문제로 인한 심각할 정도의 위기의식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통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난(至難)한 문제로서,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담당자로서 여기에 자리를 함께 한 도덕과 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사들은 현재와 미래의 남북관계는 물론 통일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통일의 전망과 비전을 심어줄은 물론 사회의 통일운동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적인

입장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현실은 그러한가? 통일문제는 과연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가? 여전히 뭐라 이야기하기 불편한 문제나 예측불허의 문제 혹은 이론과 현실의 격차가 큰 문제로 슬쩍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놓고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서울시교육청과 통일부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실 통일교육에 대하여 크게 아는 바도 없으며 더군다나 현장에서조차 통일교육의 실천자로서 매우 부족한 본인에게 오늘 주어진 이 자리가 많은 부담을 주었지만, 우리 모두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민족의 큰 걸음에 작은 돌 하나를 놓는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섰음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주제 발표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 2. 주제발표에 대한 몇 가지 고민

### 1) 학교통일교육의 의미와 쟁점에 관하여

현재 통일교육은 기본적으로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제가 사실상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다. 즉, 주제발표에 표현된 통일교육의 정의 역시 통일교육지원법에 제시된 내용과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정의(定義)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통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통일이 단순히 법적·제도적인 통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통일 즉 평화정착과 모든 인적·물적 요소는 물론 가치관과 태도의 통합이라 하였을 때, 현재의 정의에서 나타나 있는 기본 이념의 틀은 자칫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의 문제를 낳게 된다고 생각한다.

“베트남과 독일의 통일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왜 독일인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통일비용을 지불하게 될 흡수통일의 전철을 밟지말라고 조언하는가? 남북한의 통일이 근현대 세계사에서 기념비적인 모습으로 보여줄 제3의 길은 과연 없는 것인가?”하는 문제들을 제시해

보고 싶다.

다음으로 주제발표자가 제시한 7가지 통일교육의 제 쟁점들과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통일 관련교육이 그동안 너무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통일(혹은 반공)교육이 정부 혹은 정권 차원의 체제 유지 수단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시기도 존재하였음을 알고 있기에 이제라도 본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통일교육은 정부정책의 홍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민족의 미래와 사활이 걸려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만 할 것이다.

한편 두번째의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나 그렇기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통일에 대한 국제적 환경과 관련지어 특히 미국의 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즉 우리의 통일 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공화당 부시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북한을 악의 축의 한 나라로 지목하기 시작하여 클린턴 정부 시절 이루어진 대화의 성과를 뒤로 한 채, 북한과의 긴장을 촉발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은 남북한 간의 화해분위기 조성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한 내의 남남갈등 발생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최근의 핵개발 문제와 연결지어서는 이미 KEDO 이사회를 통해 북한에의 중유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 포기 조건으로서 미국에 대한 불가침 조약 체결 제의와 미국의 선택개발 포기의 대북 강경책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교사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가는 정말 어렵고 곤혹스러운 문제이다. 여전히 우리는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지어 주제발표자의 표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다. “검증되지 않은 각종 교육자료”라든지 “합의된 가치나 검증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또한 통일교육 담당자로서 교사들을 고민하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합의된 가치”나 “검증된 역사적 사실”을 판단하는데 교사들이 배제된다면 이것 역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면 토론의 장(場) 안에서 논의해 볼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명목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도 있기에 더욱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

또한 청소년의 통일무관심은 쟁점이라기 보다는 이미 사실이며 태도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통일에 무관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조일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혹자는 통일비용으로 인해, 혹자는 개인주의적 성향의 팽배로 인해 그렇다고도 하며, 또한 어떤 이들은 네크워크 세대의 특성으로 당연한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산의 아픔과 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역량의 소모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는 옛날에~”, 혹은 “내가 왕년에 말이야~”와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처럼 학교통일교육의 의미와 쟁점들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제시된 정의나 쟁점이 무엇인가보다 학교통일교육 담당자로서 교사에 대한 신뢰와 교사의 제시내용을 객관적으로 수용하려는 전사회적인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 2) 학교통일교육의 목표에 대하여

학교통일교육을 통해 우리가 양성해야할 인간형에 대하여 모두 7가지 성격을 제시해 놓은 주제발표자의 입장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교육법에 제시된 ‘홍익인간’의 이념에 기초하여 덕·체·지를 겸비한 전인(全人)이 통일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민족적 과제로서 수용하여 실천하는 모습으로 이해가 된다.

문제는 오늘날의 학교통일교육은 물론 전반적인 학교교육 자체가 전인의 육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내용과 같은 학교통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다양한 지도방안, 그리고 더 나아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15년 이상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끄럽게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당신의 학생들이 점점 더 학교교육의 목표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지적에 대하여 명쾌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통일에 따른 다소의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가진 인간”을 들어보자. 같은 학급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조차 조그

마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는 개인주의 혹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앞세워 희생을 감수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가르치는 것이 자칫 '구두선(口頭禪)에 지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향점을 가지고 끈질지게 목표를 달성하려는 소명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3)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법에 대하여

주제발표자는 학교통일교육에 대하여 모두 12가지나 되는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하여 주었다. 대부분이 다양한 교육이론과 접목된 접근법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학교통일교육의 담당자인 교사들이 통일교육을 전개하는데 있어 분명한 관점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여진다. 즉, 이는 통일문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격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다분히 기능주의적 관점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통일이란 결국 통합과 균형, 화합과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긴 해도 통일의 과정에서 나타날 각종 갈등과 부조화의 양상도 우리가 함께 감싸안고 가야 할 길이라면 갈등도 발전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재 남북한의 관계는 서로 상이한 체제와 가치관이 존재하고 있는 갈등의 관계이지만 이러한 갈등과 대립, 충돌의 문화가 새로운 가치관과 태도의 태생의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적인 교육학 이론의 접근법을 통일교육의 접근법으로 변형시켜 빠짐없이 망라하다보니 다소 백화점식 전개 of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다소 집약적으로 정리하여 현장 교사들에게 제시한다면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이를테면 자율적 접근법과 생활적 접근법 그리고 연계적 접근법에 주목하고 싶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학교통일교육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에 대한 신뢰와 교육내용에 대한 객관적 수용 태도인 것이다. 즉 교육주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내지 자율성 보장에 기초하여 학교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통일교육은 다양한 매체 특히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까지

는 북한관련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개방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할 수만은 없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는 남북의 청소년들이 '버디버디'로 교류할 날이 그리 멀지만은 않다고도 할 수 있겠다.

#### 4) 학교통일교육의 지도방법에 대하여

제시한 7가지 영역의 다양한 지도방법은 그동안에 축적된 통일교육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지도방법들이 학교통일교육의 현장에서 다양한 평가 도구와 함께 활용된다면 대단히 유용하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음의 활성화 방안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문제는 통일교육에만 전념할 수가 없는 현재의 교단 상황인 것이다. 담임의 생활지도와 잡무 등이 본질적인 교육활동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때로 수행평가의 경우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문제삼는 경우도 발생하여 활발한 교육활동과 창의력·문제해결력 학습활동이 위축되기도 한다. 그래서 다양하고 새로운 지도방법의 개발과 적용을 통한 평가보다는 객관식 지필고사 위주의 평가, 집단(모둠)활동보다는 개인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경우에 주제발표에 제시된 다양한 지도법은 매우 의미있는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 5)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특히, 표준 통일교육교육과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시급한 일이라고 하겠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통일교육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적응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관(官) 주도로 전개된다면 안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대선을 앞둔 보수-진보 대립의 정치지형 속에서 각 정당과 정파들이 통일문제(혹은 대북관계)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쇠신하기 위해서라도 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과 교사들이 먼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하여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연간 68시간의 특별활동 시간 중 10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우선 편성하도록 지침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3의 경우 34시간의 재량활동시간 중 최소 8~10시간 정도를 반드시 확보하여 중2 도덕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일교육 학습내용의 심화과정으로 편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상설적인 통일교육 협동학교계획(ASP) 운영과 같은 문제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과제이다. 물론 예산상의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활동의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작금의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의 운영 실태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이보다 더 큰 규모로 더 장기간의 연구를 담당해야 하는 계획이 수립될 경우 인력도 문제이거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로 보여진다.

한편 대입수학능력시험 및 모의고사에서의 출제가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은 학교통일교육의 당위성을 감안하였을 때 다소 부자연스럽다. 모든 교육활동의 결론은 대학입시라는 우리 나라의 교육현실의 한 단면이기는 하나 시험문제의 출제를 제도화하여 학교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자는 논의는 교사로서 다소 당혹스러운 일이다. 자칫 모든 교과목의 교사들이 유사한 논의를 전개한다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았으면 한다.

### 3. 맺는 말

학교통일교육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오랫동안 해온 결과로 이루어진 발표에 대하여 평소에 느꼈던 생각을 거칠게 말씀드렸다.

평소에 민주주의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답과 달걀의 문제’로 “제도가 먼저냐, 태도가 먼저냐?”를 묻곤 했다. 결국은 처음도 끝도 아닌 맞물린 톱니바퀴로 마무리 짓곤 했던 생각을 떠올리면서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게 된다. 통일교육의 담당자들의 문제인가? 아니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지원의 문제인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은 교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의 재자인 학생들을 상대로 부정을 위한 부정을 억지로 고집하

는 교사가 어디 있는가? 가치관의 차이로 사물과 사건을 달리 해석하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 지식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숨겨진 사실을 발굴해 내지 못한 경우 우리는 무엇을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서로를 해치기 위한 일이 아니라면 상대에 대한 신뢰와 함께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교사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도 중요하다. 또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양심적인 교사들의 통일교육 연구를 위하여 북한관련 자료도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에 관한 교사들의 전문성은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접할 때 확보될 것이며, 이럴 때 소명감도 함께 제고될 것이다.

또한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전문가 집단은 물론 학교와 교사의 교육방법 연구·적용 및 각종 통일교육 관련 연수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확대될 때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두서 없는 논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중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방 연 주  
시흥중학교 교사

## 1. 들어가며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한반도에는 봄의 기운이 따사롭게 비추어 그동안 쌓인 앙금을 녹여 주었다. 남북 정상 회담은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어온 대립과 반목의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제 분단 이후의 세대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새 천년에는 7천만 민족의 염원인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적 사명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과제이다.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 교육의 모습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며, 중학생들의 북한관과 통일관은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까닭에 급변하는 국내외적 통일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교 통일교육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고민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오늘 주제인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 발표하신 차우규 연구위원께서는 7차 교육과정 도덕교과 집필진으로서 통일교육에 탁월한 역량을 보였던 분으로, 통일교육과 관련된 7차 교육과정의 분석, 학교 통일교육의 접근 방법과 활성화 방안 등은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위해 매우 뜻깊은 연구물이라고 생각한다.

토론자는 차우규 연구위원께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평할 수 있을 만큼 학교 통일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지만, 발표자의 학교통일

교육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느꼈던 궁금한 점들과 나름대로의 생각을 피력하고자 한다.

## II. 학교 통일교육의 세 쟁점

### 첫째,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적과 동포라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는 서해교전과 금강산 관광이 동시에 존속하는데서 보여주듯이, 과거처럼 단순한 대결의 관계만이 아닌, 상호 모순된 대결과 화해 협력의 관계가 동시에 병존하는 구조적인 二重的 關係에 놓여 있으며, 북한 또한 '대결의 상대'이면서 '통일을 같이 만들어갈 동반자'라는 이중적 존재로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 학교통일교육은 이러한 이중성을 반영한 '과도기적인 이중적 상황'에 놓여있다.

통일 교육의 시작은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라고 본다면, 북한을 '적'과 '동포'라는 극히 상반된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이해하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안보위협 대상이면서 동포라는 상호 모순된 관점의 북한을 어떻게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이해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북관 혼란은 자연스럽게 통일교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 통일 단원이 소홀히 다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을 하나의 프리즘으로 바라보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북한을 바라볼 때 선·악의 구도에서 볼 것이 아니라 북한이 지니고 있는 모든 면을 냉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져야 한다.

### 둘째, 통일교육 자료의 활용 문제와 관련한 교사의 자율성 문제이다.

올해 초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전달된 공문에 의하면 "최근 편향된 북한관과 통일관에 의한 일부 교사들의 임의 통일 교육이 우려되는 바, 각급 학교에서는 정부의 통일 교육 방향에 배치되는 임의 통일 교육이 실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다.

물론 현장에서 통일교육지침서에 안내된 자료를 활용하고자 노력하지만 어떤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애매할 수밖에 없다. 수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자료들의 출처는 대부분 통일부의 공식 자료들과 인터넷 등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자료들인데, 사이버 공간에는 수많은 북한관련 웹사이트와 통일관련 웹사이트들이 구축되어 있어 객관성과 임의성 시비는 항상 상존한다.

만약 '자신이 선택하고 있는 활용하는 자료가 검증된 것인가?' 등의 물음들에 위축되어 교사 스스로 자료 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바람직한 통일 논의와 수업의 효율성 향상은 제한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의 객관성 시비를 잠재울 대책 중의 하나로 교사들이 현장에서 손쉽게 투입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국가에서 시의성 있게 개발하여 보급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적어도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자료가 의도적 편향성을 지니고 통일교육의 객관성이 저하되도록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균형적 입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다면 교사들의 자율성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셋째, 일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민주 시민 교육, 다문화 교육, 평화 교육, 민족교육 등의 방법론들과 통일교육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화해와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평화 교육적 관점에서의 교육, '다름'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문화 이해 교육적 접근, 통일 국가에서 요구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킬 수 있는 접근, 통일에 중점을 두되 안보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균형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통일 교육의 기본 방향으로서는 남북한의 갈등과 적대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평화교육, 학생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생활 문화 중심의 학교 통일교육, 전쟁의 위협과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포괄적인 안보교육,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하여 북한의 실상과 통일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통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실적 접근에 기초한 북한 사회의 이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부와 한국 교육 개발원에 의한 통일 교육의 과제는 향후 우리의 통일교육이 평화 통일 교육과 냉전 해체 교육의 민족통합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심리, 예술, 체육, 종교 등까지 포괄하는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윤황 교수는 통일교육에 관한 그의 논고에서 민족통합교육의 관점 하에 통일교육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제시했다.<sup>1)</sup>

- ① 민족통합교육은 포괄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인간중심의 통일교육
  - 민주시민양성의 통일교육
  - 평화애호의 통일교육
  - 상대주의(관용주의, 상대배려주의)의 통일교육
  - 이문화이해의 통일교육
- ② 민족통합교육은 조화론적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보수와 혁신의 조화로운 통일교육
  -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로운 통일교육
  - 안보와 화해의 조화로운 통일교육
  - 의무론과 목적론의 조화로운 통일교육
- ③ 민족통합교육은 생활론적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는 생활문화 중심의 통일교육
  - 일반인들의 이해관계를 창출할 수 있는 삶의 질 보장의 통일교육
- ④ 민족통합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통합론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저학년은 정의적 측면의 중심 통일교육
  - 고학년은 인지적 측면의 중심 통일교육
- ⑤ 민족통합교육은 객관적·현상학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통일문제와 북한문제에 대한 사실의 기초 위에 객관적·합리적·현상학적 통일교육

1) 윤황, “統一教育의 發展方向과 實踐課題”, 「政正」(2000년 제13집), pp.148-9.

⑥ 민족통합교육은 단계적·과정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단계적·점진적 통일교육
- 단기적·중장기적 통일교육

⑦ 민족통합교육은 연계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범교과적인 통일교육

⑧ 민족통합교육은 냉전구조해체의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학생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수의 학생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은 통일에 대해 방관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 학생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제반 통일문제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sup>2)</sup>

따라서 학생들이 남북 분단의 배경과 폐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남북한간 평화 정착의 실현과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 당위성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 때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여 이상주의적 시각과 현실주의적 시각이 균형 있게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의 당위성은 민족의 역사적 전통의 확립, 민족적 역량의 극대화과 국제 평화에의 기여라는 시각에서도 필요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통일 문제를 개인 생활과 관련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통일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분단으로 인하여 '나'는 어떠한 제약을 받고 있는지 등을 생각해 보도록 함으로써 통일은 먼 나라 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절실한 문제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해 타산적이며 남을 배려하는데 인색한 요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아 통일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민족은 반만년의 역사를 통일된 국가로 살아 왔고 같은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남북한 주민은 모두 한 핏줄을 타고난 형제라는 민족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한 통일이 실현되면 구체적으로 우리 민족과 나 자신에

2) 김영하, "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수모듈 개발", 통일부, 통일교육논문집, 2001, pp.60-5.

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보여 주고 설득하는 방법도 또한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것이다.

### III.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 1. 교육과정에서의 개선 방향

교과 통합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위상을 더욱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전반적인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 학교행사, 잠재적인 교육과정 등의 모든 학교 생활의 측면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표자는 학교의 통일교육 운영의 하나로 재량활동 시간을 강조하고 있는데, 학교 현실을 감안할 때 재량활동 시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일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통일 대비 교육은 통일 과정에서 겪게 될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민족 공동체 의식과 미래 정보사회에 요구되는 논리적 사고력, 창의성 등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러한 통일 교육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 교육이 교육의 틀 속에 들어가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 민주 사회를 이룩할 때 실질적 통일이 앞당겨질 것이다.

이는 남북한이 추구하는 공통점과 조국 통일의 미래상이 민주주의 체제라면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후에도 민족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민주시민 의식과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교과뿐만 아니라 전 교과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2. 탈북자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

통일의 과정은 체제와 이념의 통일뿐만 아니라 문화적 통일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북한 주민이나 학생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살다가 북한지역을 탈출한 주민 및 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가치관 및 생활 양식 등을 이해함으로써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유추하여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으로 통일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순회하면서 그들이 직접 살았던 북한 사회의 모습들을 교사의 지도 하에 특정한 주제를 정해 놓고 들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생활마저 곤란한 그들에게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시킴으로써, 교육적 효과도 높일 수 있고 그들의 생활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체계적인 인적자원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 3. 교원 연수의 개선 방향

통일교육의 실질적인 성패 요소는 현장에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지도하는 능력 있는 교사의 유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의 통일 교육 마인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겠다.

따라서 연수 비용을 지원하고 단기간 연수로 강의식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다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또한 통일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교사들의 체험 기회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의 경우 교사들에게 복지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체계적인 연수나 선수학습의 기회로 활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4. 지속적이고 다양한 통일 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통일 관련 행사도 강화되어야 한다.

혹자는 이러한 교육 활동이 연례적이며 이벤트성이 강한 구태의연한 것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 교육활동도 반복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때 교육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교과 내 활동이건 교과 외 활동이건 어느 한가지라도 꾸준히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례로 저희 학교의 경우 작년에 학교 축제 관련 행사로 운동장에서 전교생이 참여하는 '통일 ox 퀴즈 한마당'을 했으며, 올해는 3학년들을 대상으로 '통일, 도전 금종을 찾아라'를 통하여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으며 내년에는 '통일 가요제'를 추진해 볼 생각이다. 또한 '장학퀴즈'

형식이나 '생방송 퀴즈가 좋다' 형식을 빌려 1인 혹은 2인 퀴즈 대회를 열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도 있겠다.

더불어 한가지를 더 제안하자면,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집단인 연예인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통일교육을 건의하고 싶다.

예전에 실시되었던 유명 연예인들의 환경 콘서트처럼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가수들의 통일 콘서트를 연다면 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보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따라 통일에 대한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환호하는 모습을. 서동요의 재현을 현대에서도 느끼고픈 현장교사의 애달픔과 간절한 바램이다.

## 5.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론의 추구

지난 2년 동안 한 학년을 대상으로 꾸준히 통일 교육을 하면서, 가장 큰 효과는 통일을 주제로 하는 수업이 재미없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점과 통일에 대해 접근하도록 한 다양한 방법들이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통일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학생들은 수업의 주인이 통일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고 이끌어나감으로써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통일 교육은 이론적인 강의도 필요하지만 직접 체험해보고 느끼게 하는 수업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교수 매체나 교수 자료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 이러한 교육 자료 개발에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정보화 시대, 이미지가 중시되는 현 세대에 있어 통일교육 또한 학생들의 문화적 코드에 맞게,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했을 때 그 효과는 크다고 보겠다. 토론자는 실제로 통일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 뿌듯함을 느꼈던 사람이다. 일례로 '통일교육과 ICT 활용교육이 만났을 때'라고 해야 할까?

작년에는 2학년을 대상으로 개인별로는 북한 관련 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통일포트폴리오'를 제작하게 하였으며, 그것을 토대로 모둠별로는 통일홈페이지 및 웹진을 제작하게 하였다.



물론 나모니 드림위버니 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토론자 스스로 교사 통일 홈페이지 제작한 것은 학생들 지도에 우선이 되는 것이었다. 학생들에게 동기 강화를 주고자 수행평가를 100% 실시하여 한 학기 내내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 보게 하였다.

그리고 올해는 3학년을 대상으로 모둠별로 작년에 이미 구축해 놓았던 홈페이지와 웹진을 활용하여 통일일기장을 써보았는데 토론자의 생각 이상으로 너무 효과가 좋아 이번 학교 축제 전시회때 가장 학생들이 눈여겨보는 전시 작품이 되었다.

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나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을 체험하게 할 수도 있으며 북한 실상에 관한 정보 사냥대회 등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리하여 현 통일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인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일례를 들어 보겠다.<sup>3)</sup>

### < 컴퓨터 시뮬레이션 >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교육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조작이 가능한 실제 상황의 모델과 이론적인 체제로 구성되어 학습자가 주어진 상황을 여러 방식으로 조작하여 특정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뜻한다.<sup>4)</sup> 이렇게 볼 때,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현실의 모방이나 재생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실세계의 여러 측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강력한 교수 기법이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동기 유발이 가능하며 실제 상황에 대한 반응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통일교육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 체험 활동에 의해 이질화된 북한의 실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인터넷 사이트나 CD-ROM을 통해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예시하면,

#### 가) 북한의 가정생활 체험

i) 북한의 시골 마을 사진을 소재로 가상으로 북한 마을을 만든다.

3) 한정미, "남북한 문화이질화 극복방안 연구-중등학교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pp. 43-5.

4) 손 미(1997), 컴퓨터 시뮬레이션 설계, 김영수 외 편지, 「21 세기를 향한 교육공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교육과학사, pp.21- 3.

- ii) 그 속에 북한의 한 가족을 만든다.
- iii) 플레이어(player)는 그 중 아버지, 어머니, 아이의 역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다.
- iv) 플레이어는 자기가 선택한 인물의 역할을 실행하게 된다.
- v) 플레이어가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본격적인 가상 체험이 시작되게 된다.

이 때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은 1인용과 집단용으로 할 수 있다. 1인용에서는 플레이어가 선택한 배역 이외의 것들은 컴퓨터가 하게 된다. 그리고 집단용에서는 참가자들이 각각 역할을 맡아 한 가족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에서는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양해지도록 구성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서 탈북 시도, 지배층으로 상승, 지하 운동원으로 변신, 정치범 수용소 투옥 등의 다양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 나) 통일로 가는 길

이것은 통일이 단순히 감상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시켜 주기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서 단계별로 되어 있다.

- 1단계 : 플레이어는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를 극복해 내어야만 한다. 화면의 중앙 윗 부분에 북한 남녀가 나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플레이어가 알아듣지 못할 수준의 대화 내용 가운데 특정한 단어가 좌측 하단부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이 때에 화면에서는 유성이 떨어지듯 그 단어들이 바닥에 떨어지기 이전에 해당어를 마우스를 이용하여 클릭해야만 한다. 70% 이상을 맞추어야만 2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 2단계 : 주변 4강의 책임자들을 만나게 된다.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을 가상 현실 속에서 실제로 체험해 보게 된다. 주변 4강의 책임자들에게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만장일치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만 3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 3단계 : 낙후된 북한의 경제를 되살려 내야만 한다. 북한의 경제지표들을 바탕으로 하여 군사비 축소, 문호 개방 등의 정책을 실시해 나가야만 한다.
- 4단계 : 북한의 최고 책임자를 설득하여 동의를 구해야 한다.

## 6.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변화

통일교육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학생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활 문화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생들은 가정 생활, 의식주 생활, 가족 관계, 생활 관습 등 북한 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많은 상황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생활 문화를 소재로 하여 통일 교육을 실천한다면 북한을 우리와 관련이 없는 다른 세계로 인식하기 보다는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우리와 같은 문화를 갖고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는 우리의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북한주민을 다룰 때 차이와 다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갈 민족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하나된 우리의 모습 찾기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통일 지도 그리기, 통일 국기 그리기, 통일 노래 배우기, 통일광고 제작해보기, 통일 염원 촛불 의식, 통일 주먹밥 만들어먹기, 통일 요리 경연 대회, 북한 청소년 놀이 배우기, 통일 옷놀이하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북한의 생활 문화를 학생들의 체험활동과 연계지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 7. 교사 및 학교장의 지원

위에서 말한 다양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들을 가지고 교사가 열의를 가지고 교육하려 해도 주변 여건이 따라가 주지 않는다면 학교통일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겠다.

학교 통일 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장이나 일반교사 그리고 교육청 관리들의 통일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풍부할수록 좋다.

학생들의 통일의식이 높아지고 교사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들이 적극 호응하지 않거나, 정부의 학교 통일교육을 따라가 주지 않는다면 학교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들에 대한 통일교육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sup>5)</sup> 학교 관리자, 학부모, 학부모(예컨대, 학부모회, 명예교사회, 학교 운영위원회 등)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필요성 인식교육이 선행될 때, 학교 통일교육의 교육적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5) 권영경, “남북한 화해협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와 정부의 역할 방향”, 통일부, 「제4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자료」, 1999

또한 학교 통일교육이 활성화되려면 학교내 교원들의 대화가 활성화되어 통일 교육의 방향을 공유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 8. 통일촌의 설립 운영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민속촌을 구경하며 우리의 옛 조상을 떠올리며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난다.

작년에 통일사랑반 학생들을 데리고 관내에 있는 '남부 한마음 통일터'를 다녀온 적이 있다. 그리고 현재는 그것을 발전시켜 '통일기행반'을 운영하여 통일·북한 관련 단체 및 장소를 견학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

통일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분단의 현실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상대방인 북한인들의 생활을 직간접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통일촌)를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통일학습 체험장은 거리가 멀거나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어 활발한 통일 교육 학습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통일의 필요성을 학습자 스스로 느끼고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이러한 체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에 각종 통일촌을 설치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 9. 통일 교육 전문 요원의 양성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公理는 통일교육의 장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다양한 연수 기회의 확대, 연구회 조직 운영 및 활동으로 학습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양성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을 열게 하고 마음을 유도하며 중국에 가서는 팔을 걷어 부치고 변혁을 향하여 행동하게 하는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환경을 조성하는 통일교육전문요원이 필요하다.

## 10. 통일 교육 교사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학교 통일 교육은 실제 담당 교사들의 의지와 사명감에 의해 그 질이 좌우된다.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 교육에 관한 정보와 교수-학습 방법론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보다 높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간의 일정 지역 혹은 각급 학교별로 상호 정보 및 의견 교환의 모임을 지원하고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상호 교환한다면 통일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V. 맺으며

학교통일교육은 현재의 통일교육체계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사회 통일교육과도 교사 등 통일교육 실시자 및 학부모 등을 통하여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특히 현재의 평화공존시대를 거쳐 언젠가는 통일로 나아간다고 볼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 교육은 곧 우리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우리 민족이 현재 감내하고 있는 불행한 분단 현실은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야 하지 않을까? 이 시대 외세에 의해 갈라진 땅에 운명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좌우를 막론하고 통일문제를 품에 끌어야 하리라.

내 생이 끝나기 전에, 순수하고 해맑은 눈동자로 우리 교사들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반쪽이 아닌 완전한 하나의 금수강산을 물려주고 싶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줄고를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다시 한번 발표자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 학교통일교육 실천방향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토론

유 은 진  
성서중학교 교사

## 1. 들어가며

차우규 박사의 주제 발표 글은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 및 활성화 방안  
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 교육은 노력한 것에 비해 그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통일에 대해 생각한 적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냉담한 반응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보이는 학생들을 보면 통일교육을 담당해 온 교사로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통일교육 환경은 어떻게 변화했  
으며 이것은 통일교육에 있어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가에 대한 현장교사 중  
심의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통일교육은 역사적 산물로서 90년대 이후 탈냉전적 세계정세 변화는 남  
북관계에도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왔다. 북한은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개방이 가져올 자유화 바  
람이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체제 유지적인 제한적  
인 개방에 머물고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과도기적 이중적 상황'이라고 할 수있다. 냉전 해체  
의 비동시적(非同時的) 진행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에는 냉  
전의 잔재가 남아 있고 남북관계에 있어 수면 위의 화해 협력 분위기와는  
달리 수면 아래로는 제레식 군사력과 핵, 미사일 및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로 무장한 북한과의 긴장이 서려 있다.

시대적 환경적 변화는 통일 교육에 줄곧 반영되어 왔다. 그것은 반공교  
육으로부터 시작하여 통일·안보 교육을 거쳐 통일교육으로의 호칭의 변화  
로 잘 대변된다. 냉전 시대의 통일 교육은 체제경쟁을 앞세운 소멸의 논리

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탈냉전시대를 맞아 통일교육은 합리적·이성적 판단 하에 소모적인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의 발전과 번영의 토대인 민족공동체를 복원시킨다는 공존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의 평화 공존이 최우선의 과제로 부각된다.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기존 질서의 체계가 흔들리고 재편되는 과정에 서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통일교육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교사들에게 큰 어려움을 던져준다.

## II. 학교통일교육의 실천 방향

### 1. 통일에 대한 무관심 극복

최근 북한 농축우라늄 핵 개발 프로그램이 노출되면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는 급물살을 타며 긴장 국면을 보이고 있다. 신문과 TV, 라디오 등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거론하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들려주는 최근의 상황의 흐름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흥미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평상시 통일이나 북한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회의적이던 학생들도 급박한 주변상황이 직접 와 닿는 것 같았다. 이는 통일교육에 있어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준다.

통일 문제는 강 건너의 일로 인식되어져 왔다. 당장 내 앞의 일이 아닌 것이다.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는 것이다. 어떤 문제이건 그것이 내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 해결이 중요하게 여겨질 리가 없다. 동태적 존재로서의 북한과 주변 정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생생한 자료와 정보를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고 개발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안보 의식을 바탕으로 한 평화 공존 의식 함양

민족공동체는 한반도라는 공동의 삶의 터전에서 언어, 역사, 문화를 함께 해 온 혈연공동체이다. 그러나 분단된 민족공동체가 실질적 하나로 복원되려면 얽힌 실타래를 한올한올 풀어 가는 것처럼 복잡한 과정과 긴 시간이 요구된다. 적으로 바라보던 북한을 동포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인식의 혼란과 갈등을 피하기는 어렵다.



대결적 입장에서의 안보가 아니라 평화와 연계된 안보 의식을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 확고한 방어력을 갖추는 것이 궁극적인 평화 정착의 기반이다. 안보는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다. 정치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안보는 어디까지나 안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한다.

### 3. 통일 문제의 국제적 성격 인식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의 이익이 침해하게 대립하는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입장 뿐 아니라 관계국의 이해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 환경의 조성에 있어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협조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무조건 외세 배격을 외치고 반미 감정을 앞세우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익에 위배되는 일일 수 있다. 특히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는 통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 됨을 이해시킨다.

## III.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 1.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과 특별활동 시간 활용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재량 활동을 통해 통일교육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민족공동체교육, 평화 교육, 평화적 갈등해결 교육 등을 기본 주제로 한 범교과적 통합 교육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재가 다양하게 개발 보급된다면 자료 개발에 따른 개별 교사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별활동을 전일제로 운영하면 현장 체험 학습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 2. 통일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 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 확충

통일관련 자료를 제시할 때는 균형적 시각을 갖춘 교사가 이를 적절히 재구성하여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교육 담당 교사들에게 북한의 현실과 생활상에 대한 객관적인 최근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확충되어야 한다. 자료들을 검증하고 자의

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 인식의 토대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발표자의 생각에 동감하는 바이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전체적이고 균형적 관점을 가진 통일 교육 교사가 양성되려면 교원양성 프로그램과 교원연수 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폭넓은 지식을 가지면서 균형과 중심을 유지하는 교사가 필요하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다양성이 하나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융화되고 공존할 수 있는가를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해석 능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 3. 멀티미디어 시대에 알맞은 사이버 교육 실시

정보화 시대의 학생들은 컴퓨터가 거의 생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에 학내전산망과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 사회전반에 정보 인프라가 확충되었다. N세대로 불리는 요즘의 학생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보다 생생하고 최신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소양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 교사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보다 앞서나갈 수 있거나 최소한 뒤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자료센터의 네트워크화 및 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발표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특성에 따라 언론 매체와 교육 기관의 자료가 연계되고 공유된다면 보다 효율적 교육이 될 것이다.

각종 ICT 활용교육자료와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모둠학습교실, 멀티미디어 실습실 등의 하드웨어적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이것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및 문제해결력 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4. 체험·활동 중심의 통일교육

‘Learn by doing’이라는 말도 있고 ‘Learning by experience’라는 말도 있다. 백문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도 있다. 자칫하면 추상적, 이론적, 가치규범적 교육으로 흐르기 쉬운 통일교육은 직접적인 체험과 간접적인 체험 및 가상 체험 학습 등의 체험·활동 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겪어보고 당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북한의 폐쇄성으로 북한의 생활과 사회를 직접 체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

렵다. 하지만 화해·교류·협력이 점차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일부 학생에게라도 제한적이거나 교환학습 같은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들의 교류도 가능하다.

통일전망대, 땅굴, 임진각 등의 견학을 통해 다양한 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정의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가상 체험 학습이다. 다양한 구체적 상황에 직접 부딪히는 가상 체험을 통해 역지사지의 자세와 공존의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 5.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및 학교 통일교육기본계획 참조

발표자가 제시한 표준 통일교육 교육과정안은 통일교육의 일관적, 체계적 접근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토론자의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교육과정안이 구체화될수록 교사의 자율적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내용과 방법상의 융통성도 줄어들게 된다. 통일부에서 나오는 통일교육지침서를 기본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 통일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안내되고 있다. 이것을 기본적인 틀로 삼으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6. 통일 전문가의 컨설팅

통일 교육 전문 연구기관이 설치되고 전문 위원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통일 교육이 주변 정세와 정치에 민감한 분야임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인 통일교육 실시에 따른 부담감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검증된 타당한 자료는 제한되기 마련이므로 교사 자신이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분야나 기법에 대해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해준다면 통일 교육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다.

## IV. 나가며

통일은 민족적 숙원사업이고 역사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통일을 통해 진정한 민족, 민주, 복지 국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 및 주변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민족의 평화와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역사는 흘러갈 것이다. 비록 멀고 힘해도 통일교육은 현재의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미래의 통일을 앞당기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며 민족의 실

질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투자가 된다.

통일 교육에 몸담고 있는 한 교사로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을 되새기며 자신부터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통일 한국 건설에 앞장서야겠다.

#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에 관한 토론

이 세 형  
언남중학교 교사

## I. 머리말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학교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는 학교 통일교육에서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는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라는 문제가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자는 그간의 노력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어놓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결과로 여전히 학교 통일교육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걸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차우규 연구위원의 글은 많은 기대를 가지게 한다. 금번 워크숍에서의 논의가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먼저 차우규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문을 살펴보고,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 II. 주제 발표문의 검토

차우규 연구위원의 발표문을 편의상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관점에서 볼 때,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토론자는 생각한다.

## 1.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

학교 통일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이 분석되어야 한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우규 연구위원의 발표문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의미와 쟁점'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차우규 연구위원은 통일교육의 제 쟁점을 7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북한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북한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안보교육을 계속해야 하는지, 청소년들의 통일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교육 등과 통일교육의 관계 문제, 통일교육이 정부정책의 홍보인지의 여부가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통일교육의 중요한 제 측면들이기는 하지만, 학교 통일교육이라는 측면에서의 모든 문제를 담고 있지는 못한 듯 하다. 사실 학교 현장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쟁점의 논의보다는 당장 수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참신한 자료가 더 필요하고, 형식적인 통일교육보다는 실질적인 통일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 쟁점이 된다고 제시된 많은 문제들 중 많은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통일부 출간의 「통일교육 기본지침서」 등의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가치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즉, 통일교육의 일반적인 쟁점이 그대로 학교 통일교육의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학교 통일교육이라는 문제가 일반적인 통일교육의 관점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 보다 와 닿는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인식하는 통일교육의 문제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통일교육의 실태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연구 결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sup>1)</sup> 이러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통일교육을

1) 제 4차 통일교육 발전 워크숍(2002.9.27)에서 대진 가양중학교 윤현수 교사의 토론 원고 "교사·학생의 통일의식 실태분석을 통한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이나 2002년도 중등교사 장기반 제1기 분임연구보고서로 제시된 "학교통일교육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2.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차우규 연구위원은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표준 통일교육 교육과정안의 마련, 범교과를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양성 교육과정 마련, 재량활동을 이용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마련, 통일교육 연구 활동에 대한 적극적 예산 지원, 사이버를 활용한 통일교육 자료 센터의 특화 및 네트워크화, 통일교육 컨설팅제 운영 및 통일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 상설적인 통일교육 협동 학교 계획 운영,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각종 모의고사에서의 출제 등 8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화하여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대부분의 교사들도 이러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일부는 지나치게 총론적이고 거시적인 느낌이 들고, 또 일부는 이미 실천되어 있기도 하다.

제시된 활성화 방안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교원양성 교육과정 마련, 재량활동의 편성 권한, 예산 지원 권한, 통일교육 자료 센터의 특화 및 네트워크화, 통일교육 협동학교 계획 운영 등의 방안들은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방안들은 학교 통일교육 정책 집행자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들이다.

또, '재량활동을 이용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마련'이라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교재들이 개발되어 있거나, 개발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이미 통일 관련 문제들이 출제된 바 있다.<sup>2)</sup>

전반적으로 볼 때 차우규 연구위원의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들은 학교 통일교육 정책 담당자들에게 매우 적절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기는 힘들다고 하겠다.

---

은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2) 최근 수능시험에 실제로 2001년은 2문제, 2002년의 경우 5문제가 출제되었다(이창림,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 「통일부 제 1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발표원고」, 2002. 4. 26)

### III.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자의 견해

필자는 위에서 차우규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가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는 힘들 것 같다는 개인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적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차우규 연구위원 같은 전문적 연구자들이 내어놓지 못하는 만족할 만한 대안들을 토론자가 제시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도 「통일교육 발전 워크숍」에서는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해 보고, 그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통일교육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론자는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의사소통의 단절,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지위, 사회적 여건의 미성숙, 통일교육 방법의 교묘화로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상술한다.

#### 1. 의사소통의 단절

학교 통일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에 대해 토론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의사소통의 단절을 지적하고 싶다. 학교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통일교육과 관련있는 제 행위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통일교육과 관계 깊은 정부 당국인 교육부·통일부와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사이의 적절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대전 가양중학교 윤현수 교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조사 대상 교사의 57.1%가 통일교육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부 및 통일부의 관계자들은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수많은 통일교육 자료들을 만들어 내고, 이를 일선 학교에 보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자료를 찾으려는 교사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자는 통일교육 당국과 교사들 사이의 통일 관련 자료 부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통일부나 교육부는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료의 성격



에 대해 깊이 있는 현장 조사를 하지 못했거나,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깊이 있는 고려를 하지 못했고, 교사들은 어떤 자료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충분한 탐색 작업을 하지 못했으며, 어떤 경로로 자료나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를 잘 알지 못 하고 있는 듯 하다.

또 통일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단절도 지적하고 싶다. 통일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수많은 자료들을 접하고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디선가 본 듯한 자료'라는 생각이다. 비슷한 성격의 자료들을 집필자나 개발자 혹은 연구자들만 바뀌면서 새로이 만들어 내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막대한 시간과 예산의 낭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미 만들어진 자료나 정보를 바탕으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부분들을 추가하는 등의 능률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통일교육 관련 연구자들의 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소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우규 연구원이 제시한 '통일교육 자료 센터의 특화 및 네트워크화', '통일교육 컨설팅체 운영 및 통일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학교 현장과 통일교육 당국, 연구자간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그 중심이 되기를 희망한다.

## 2.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지위

통일교육 당국이나 통일교육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통일교육 방법은 많은 경우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통일 교육 행사의 내실화, 체험학습의 강화, 재량활동을 이용한 통일교육, 통합교과적인 접근 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학교 통일교육이 과연 학교 활동의 최우선 활동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통일교육 시범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 통일교육의 지위를 학교 활동의 실질적인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키거나, 아니면 통일교육과 관계 있는 교과 내에서의 실천 계획을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거나, 현실에 맞추어 이상을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3. 사회적 여건의 미성숙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절정에 달한 뒤, 그 관심이 점차로 약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 통일교육만이 지

속적이고 발전적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윤현수 교사의 글에서 볼 때 '통일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은 46.9%에 불과하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직후 중고생들의 71%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sup>3)</sup>고 답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학교에서 지속적인 통일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 책임을 학교 통일교육에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학교의 책임을 묻기 전에 우리 사회의 통일 의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학생들은 북한이나 통일에 관해 학교에서보다 TV나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사회적 여건의 성숙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사회적 여건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이다.

#### 4. 통일교육 방법의 교묘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통일 방법을 모색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통일교육에 만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19.4%에 지나지 않는다.<sup>4)</sup> 학생들의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 애쓰는 많은 교사들을 볼 때 그 원인을 단순히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전통적인 통일교육 방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교사 중심의 강의식 방법이 새로운 통일교육 방법으로 제시되는 학습 방법보다 항상 못한 것은 아닐 것이다. 교사의 감동적인 강의는 그 어떤 통일교육 만큼이나 효과적인 통일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물론 교사의 강의를 항상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통일교육을 배워 온다. 통일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항상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물론, 통일교육의 계열화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반복되는 내용의 지루함을 들어 주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통일교육 보다는 간접

3) 한겨레 신문, 2000.07.21 (사회) 통계/실문조사 17면 04판

4) 윤현수, 앞의 글, p.46

적인 통일교육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광고를 직접 보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 지루해 하지만, TV나 영화 속에 삽입되어 있는 상품의 간접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별다른 거부감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마저도 생기는 원리이다.

통일교육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통일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묘한' 통일교육의 방법을 이용한다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토론자는 “학교 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 발표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을 가했고, 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토론자는 여전히 차우규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는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담론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담론이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보다는 학교 통일교육 정책자들에게 보다 더 유용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입장에서, 짧은 식견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대안들은 개인적인 생각에 머무르는 수준이지만, 이러한 개인의 생각도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부 록

- 통일교육지원법
-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 統一教育支援法

制定 1999·2·5 法律第5752號

**第1條 (目的)** 이 법은 統一教育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統一教育"이라 함은 國民으로 하여금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信念과 民族共同體意識 및 건전한 安保觀을 바탕으로 統一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價値觀과 態도의 涵양을 目的으로 하는 재반 教育을 말한다.

**第3條 (統一教育의 基本原則)** ①統一教育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수호하고 平和的 統一을 지향하는 方向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統一教育은 개인적·파당적 目的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第4條 (統一教育基本計劃의 수립)** ①統一部長官은 統一教育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統一教育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統一教育의 基本方向 및 主要內容
2. 統一教育 실시와 관련하여 各 部處 및 各 機關·團體의 協助에 관한 사항
3. 統一教育要員 및 統一對備要員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統一教育實態의 調查·評價 및 是正에 관한 사항
5. 기타 統一教育에 관한 重要한 사항

③統一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統一教育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5條 (統一教育審議委員會의 設置)** ①統一教育에 관한 基本政策 기타 重要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統一부에 統一教育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의 委員長 1人 및 副委員長 2人을 포함하여 2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會의 委員長은 統一部長官이 되며, 委員은 統一部長官이 任命한다. 다만, 委員중 6人은 國會議員이 추천하는 者로 한다.

④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委員會로부터 위임받은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實務委員會를 두며, 實務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政府의 임무)** ①政府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教育의 실시, 統一問題研究의 振興, 統一教育要員의 양성·지원, 教材의 開發·普及 기타의 방법으로 統一教育을 활성화한다.

②政府는 統一教育을 실시하는 者(法人 또는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豫算의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7條 (統一教育의 반영)**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教育訓練機關 및 大統領令이정하는 社會教育機關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教育訓練課程에 統一教育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8條 (學校에서의 統一教育振興)** ①政府는 初·中等學校에서의 統一教育의 振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大學 등 高等教育機關을 設立·경영하는 者에게 統一問題와 관련된 學科의 設置, 講座의 開設, 研究所의 設置·운영 등을 勸獎할 수 있다.

**第9條 (統一教育受講의 요청 등)** ①統一部長官은 統一教育을 실시하는 者, 南北 交流·協力事業에 종사하는 者, 統一對備業務에 종사하는 者 기타 統一教育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게 統一教育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統一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一教育對象者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0條 (統一教育協議會)** ①統一教育을 실시하는 者는 統一教育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協議·調整 기타 상호간의 協力增進을 위하여 統一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統一教育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議會의 組織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告發)** 統一部長官은 統一教育을 실시하는 者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統一教育을 실시한 때에는 搜查機關등에 告發하여야 한다.

## 附 則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제정 1999· 8· 6 대통령령제16501호  
개정 2001· 1· 29 대통령령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 1· 29 대통령령제17116호(여성부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일교육기본계획)**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노동부차관· 여성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과 국무조정실소속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3.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 1인씩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 ①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통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노동부·여성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소속 실·국장급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제10조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경비의 지원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지원대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교육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일교육시행에 필요한 비용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수행능력,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계속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 (통일교육의 반영)**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원연수기관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호의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1시간 이상
2. 3월 이상 6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2시간 이상
3. 6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 3시간 이상

**제15조 (통일교육협의회)**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